

‘전남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관계부서 간담회 개최

2학기,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 확대

“순천시에 영구거주 의사 밝힌 가족 다수”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박해정 의원은 최근 도시 학생들이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학교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시 허가민원과 등 유관부서와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낙안면 ‘이화서당’ 김대중 훈장, 월등면 이정 이장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화서당의 김대중 훈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예절·인성교육 등을 통해 도시 학생들이 얻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현재 1학기에는 서울지역 학생들만 교류에 참여하고 있지

만 2학기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8가족이 함께 이주해 유학을 하는 ‘가족주거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월등면 계월리의 이정 이장은 “마을 주민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 한적했던 시골마을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순천시에 영구거주 의사를 밝힌 가족도 다수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들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순천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법성 안에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주관청인 전남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해정 의원은 “전남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은 인구유입,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자체가 풀어야 할 현안문제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업초기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과정을 매뉴얼로 정리해 사업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은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상호 협약을 맺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이 전남지역의 농산어촌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면서 농



촌지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첫 운영 중이며, 전체 82명의 참여 학생 중 26명이 순천시 낙안면과 월등면에서 유학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 실시

환경지킴이 ‘지구돌봄이 머그컵’ 직원들에게 전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17일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녹색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지구돌봄이 머그컵’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청사주변에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성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서 그

의미가 컸다.

청사 2층 주차장 뒤쪽의 언덕 공간에 비파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유자나무 등의 유실수 등을 심었다. 덕분에 청사 주변 자연경관이 전과 비교해 보기 좋게 단장되었다.

식목행사에 참여한 교육협력팀의 선형우 주무관은 “평소 2층 주차장 뒤쪽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채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고, “직접 나무를 심어서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오늘 심은 나무들을 잘 가꾸어 가겠다”고 전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김한관 교육장은 “청사의 공간 관리와 조경을 위해서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보성 관내 학교에서도 푸른숲 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주시교육청, ‘안심콜(Call) 출입관리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소·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광주시교육청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안심콜(Call) 출입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콜(Call) 출입관리서비스’는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출입관리 방식을 개선한 서비스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수기 및 QR코드로 출입명부를 관리해 왔던 시

교육청은 민원인 등 시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안심콜(Call) 출입관리서비스’는 시설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운영된다.

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시교육청에 부여된 10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 및 출입시간이 자동 저장된다. 기록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삭제되며 통화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최윤희기자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순천시평생교육과

전남동부권 평생교육 포럼 공동 개최

‘온택트 시대, 지역 평생교육 나아갈 방향’ 주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미래융합대학은 순천시 평생교육과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오후 3시 학내 70주년기념관에서 ‘온택트 시대, 지역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순천대학교는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대학과 지자체 협력의 좋은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하였다.

행사는 미래융합대학 김도균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 순천시 허석 시장, 순천시의회 박계수 부의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만희 실장, 순천시 양효정 평생교육과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남시 이해중 평생교육과장의 “지자체 평생교육 우수사례”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하영 회장의 “온택트 시대, 지역 평생교육의 생존과 성장 전략”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자와 발표자들이 온택트 시대 지역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과 미래융합대학 유튜브 채널 ‘라이프’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환영사에서 “지역민들이 코로나19로 멈춰버린 평생교육 참여에 목말라 있다.”라며, “이번 포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 기관 간의 협력이 지속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순천시 허석 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평생학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각 지자체의 평생학습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평생교육 전문가 의견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은 상반기에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남도 문화탐방’ 온라인 강좌 개발 및 각종 캠페인 개최를 계획하고 지역민의 평생교육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